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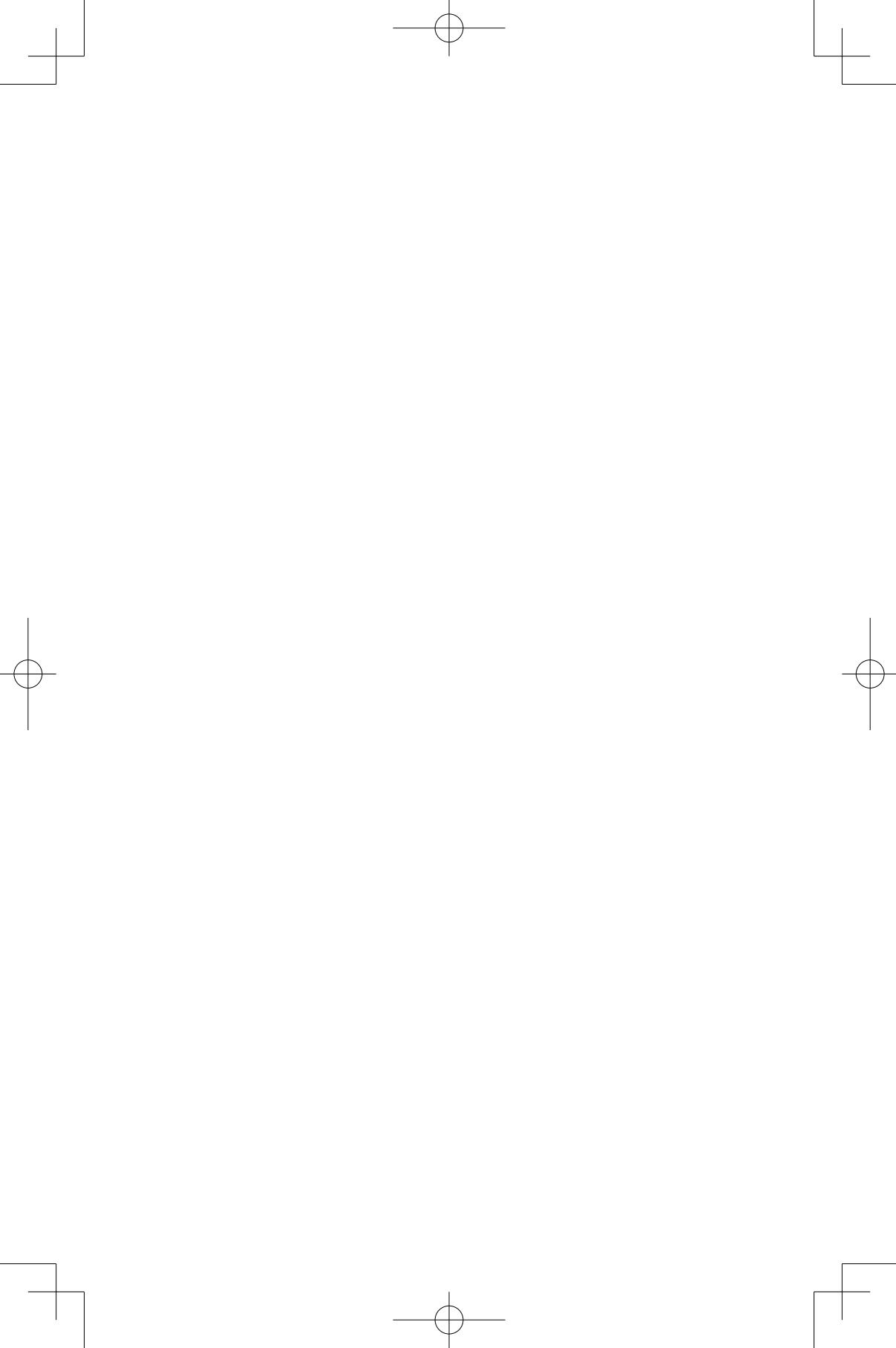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긴 여운

꿀통에 빠진 벌

박원철 시인의
3번째 시집



한국장애인문화복지후원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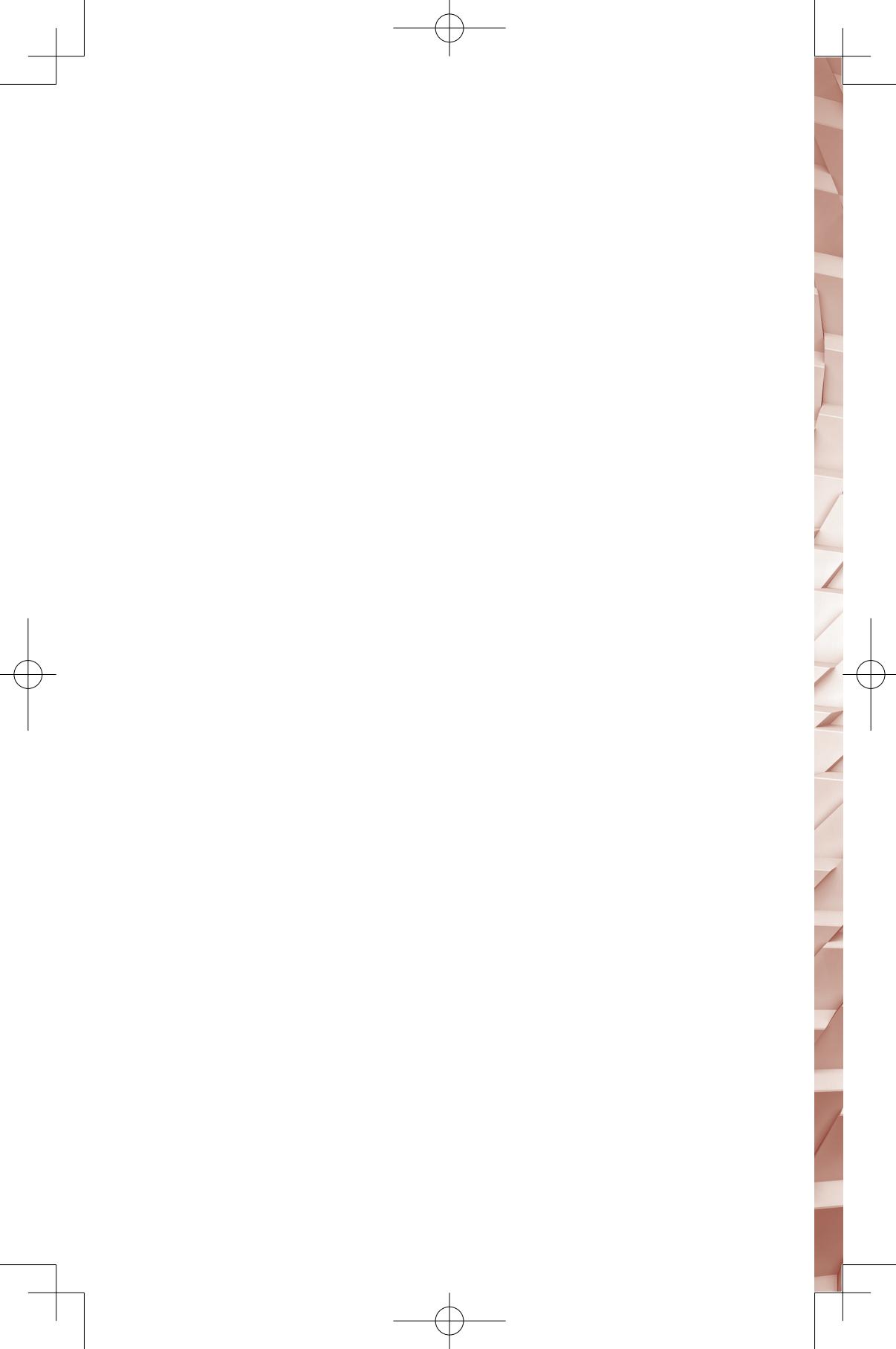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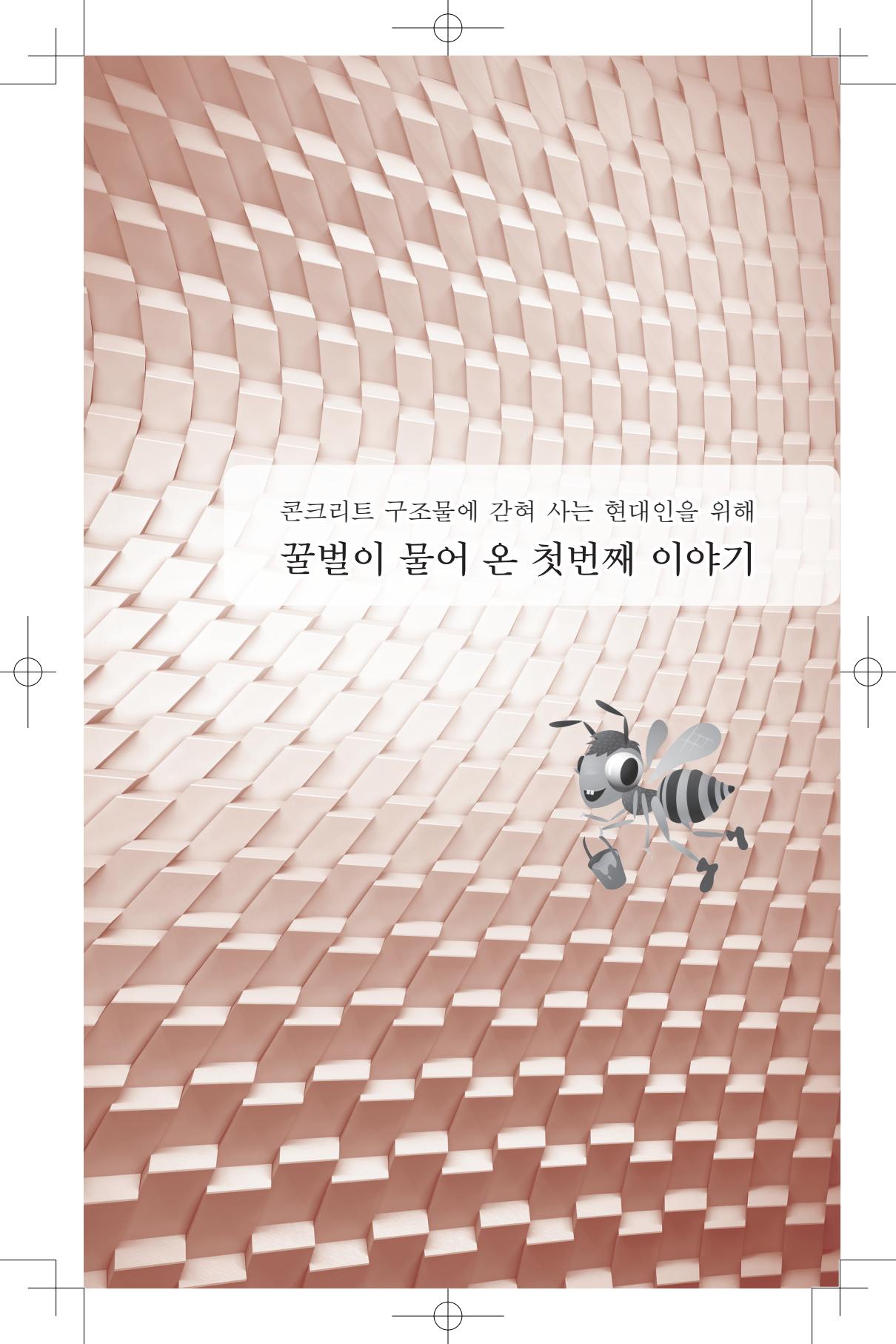
01 꿀벌이 물어 온
이야기 05

02 꿀벌이 물어 온
이야기 37

03 꿀벌이 물어 온
이야기 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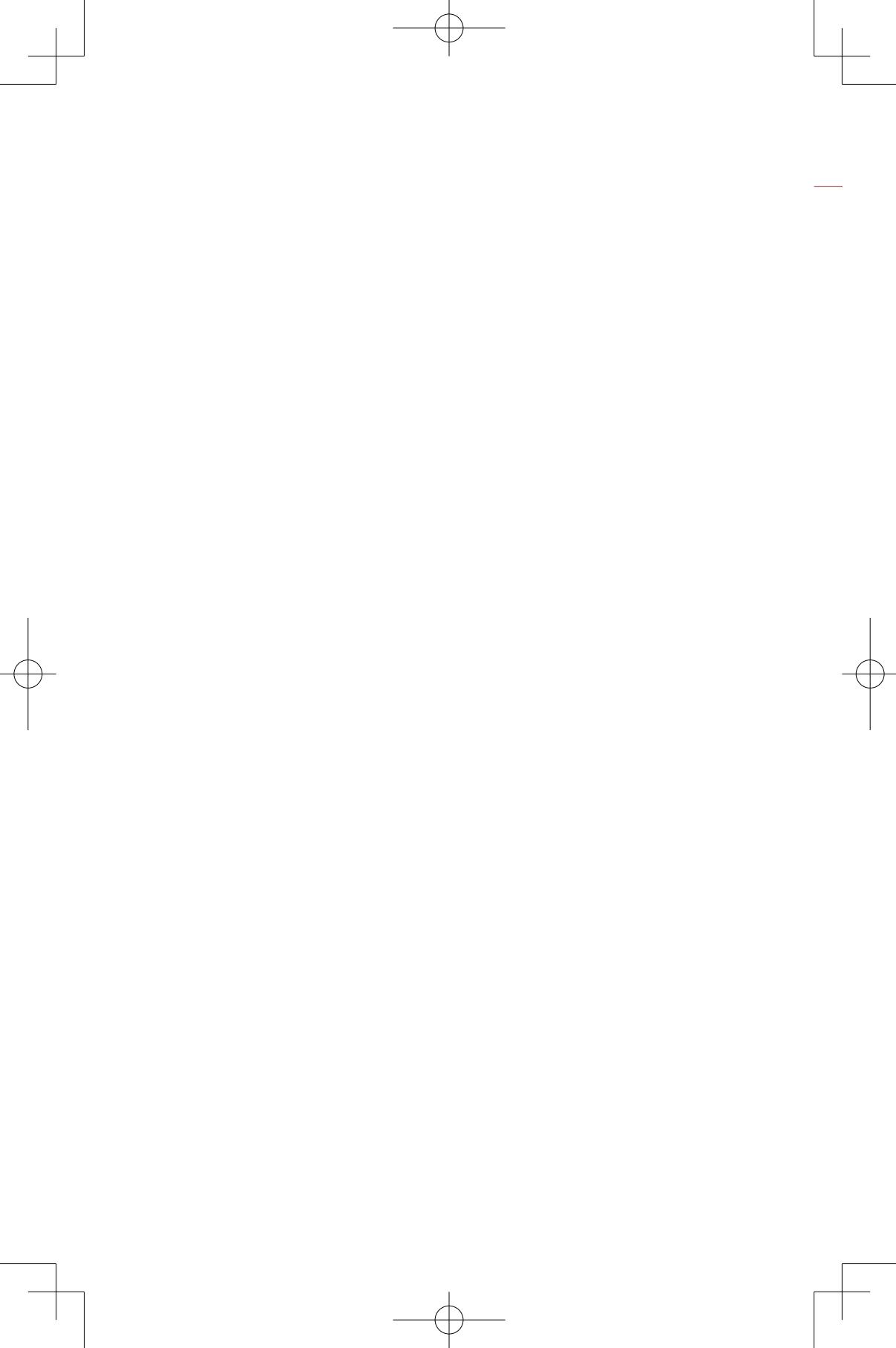
04 꿀벌이 물어 온
이야기 95





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사는 현대인을 위해
꿀벌이 물어 온 첫번째 이야기





고백

네가
사랑 한다
고백하던 날



하마터면
내가 먼저
고백할 뻔 했다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며을

진어

집나간 며느리도
돌아온다는
전어 굽는 냄새에

집안에 있는 며느리가
집 나가게 생겼다



불효

부모는
자식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



일부러
그러는가 보다

철들라고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떠온 ◀

여자 친구 아이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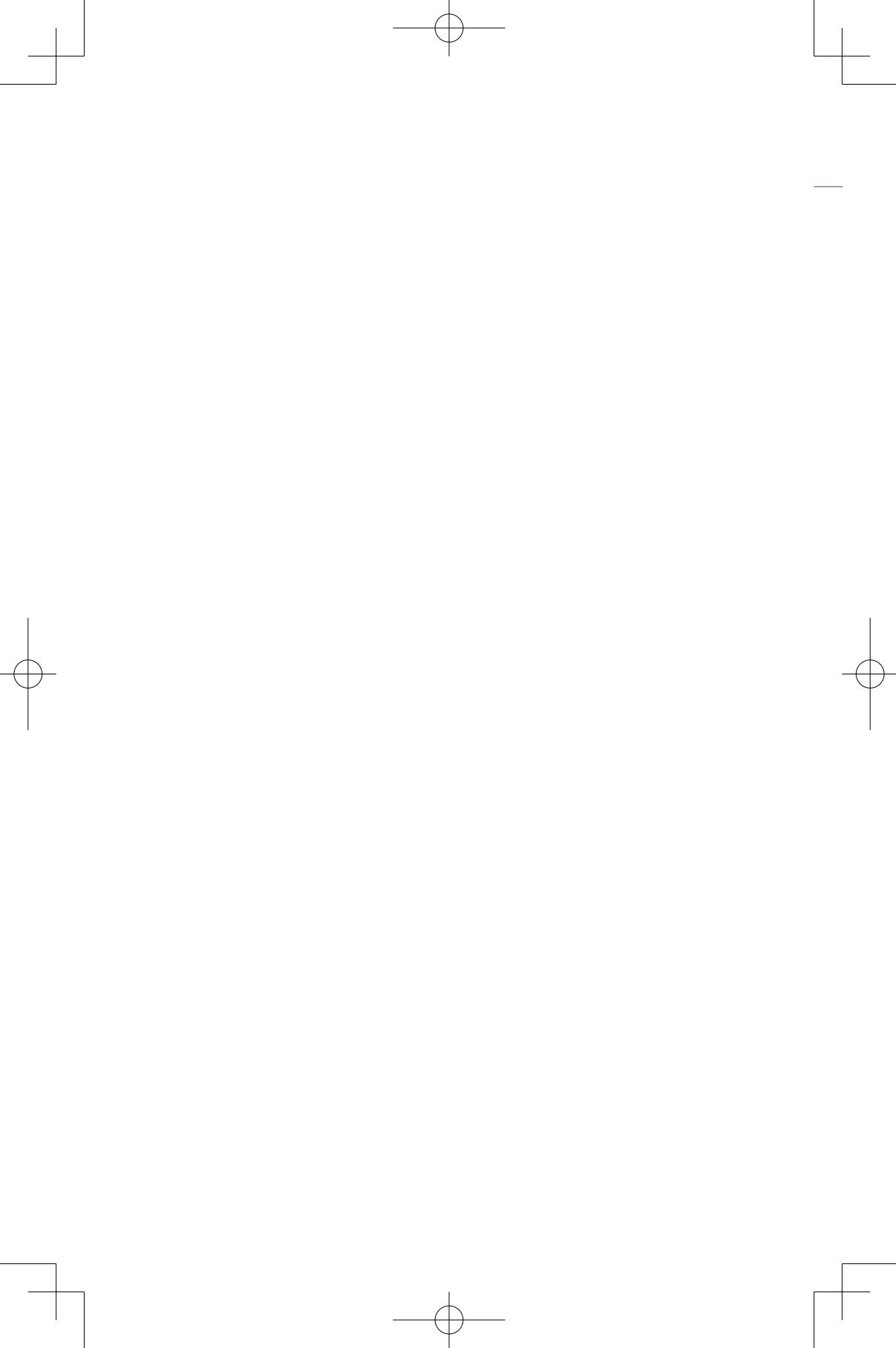
내 여자 친구는
아무도 못 당해

아이큐 80에
잔머리 300



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사는 현대인을 위해
꿀벌이 물어 온 두번째 이야기





단비

마른 가슴에
오랜만에
실로 오랜만에 온다고



천둥과 번개로
한껏 호들갑을 떠는 너

시보다 짖고 소보다 길 떠울

마늘

몸에는 좋고

냄새는 안 좋고



자장가 2

잘 자라
우리아가~



조용히 해
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잖아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떠온 ◉

마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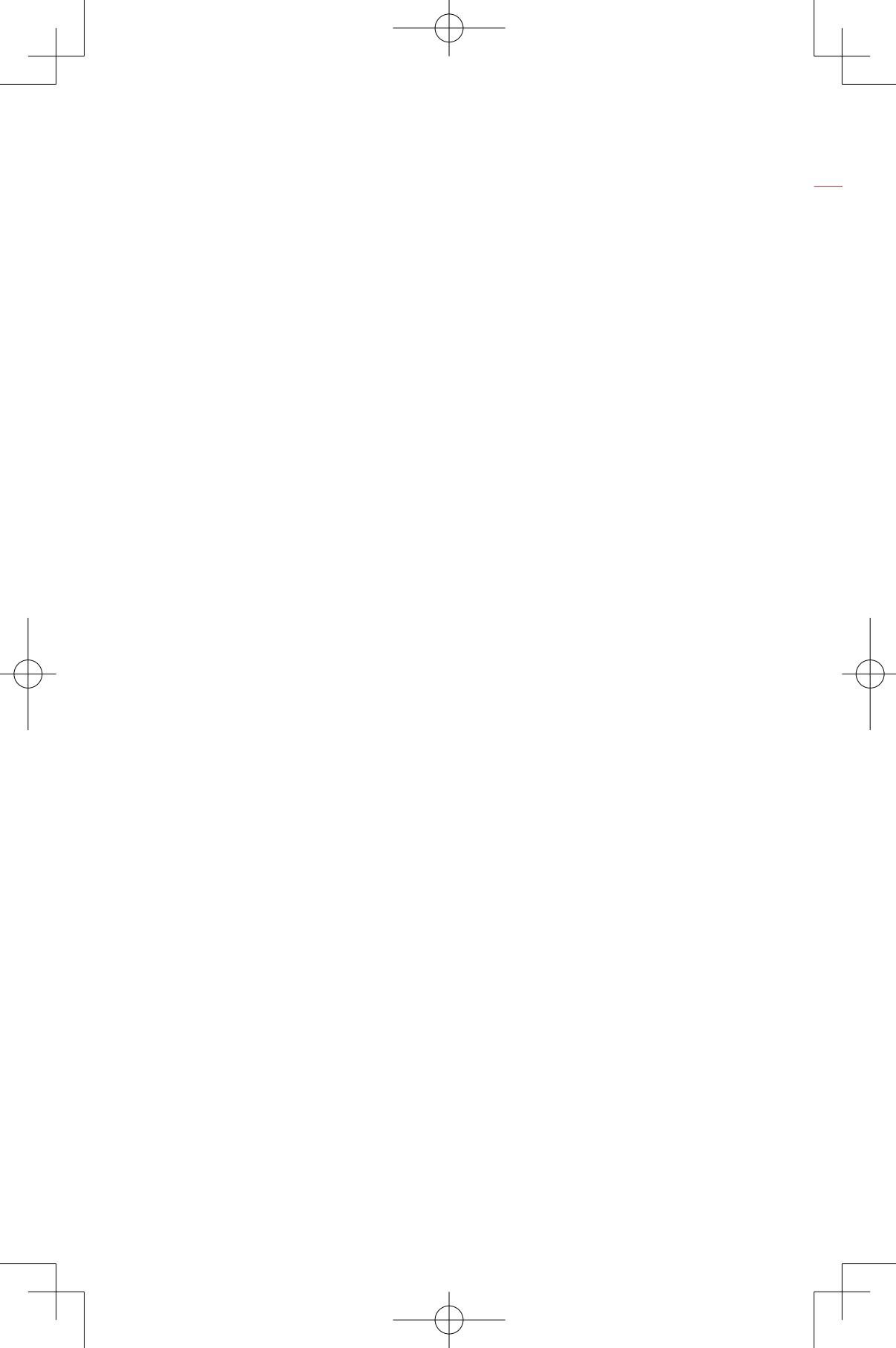
공원에
꽃이 한 가득이다

징하다
정말



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사는 현대인을 위해
꿀벌이 물어 온 세번째 이야기





한 때는

한 때는
나 같은 너였는데



진정
한 몸 되어
살아 온 지금

날마다
네가
낮이 설다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떠온

동정

악수가 하고 싶어서
손을 내밀면

사람들은
내 손에

돈을
줘어 주곤 받다



커풀 T

똑같은 티에
같은 글자를 새기고



똑같이 반쪽 바지를 입은 남녀가
유채밭 사이를 누비며
껴안고 어루만지며
행복에 겨워한다

똑같아야 한다는
구속마저
달콤한 저들이여!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떠올

봉서

당신을
용서해 주기로 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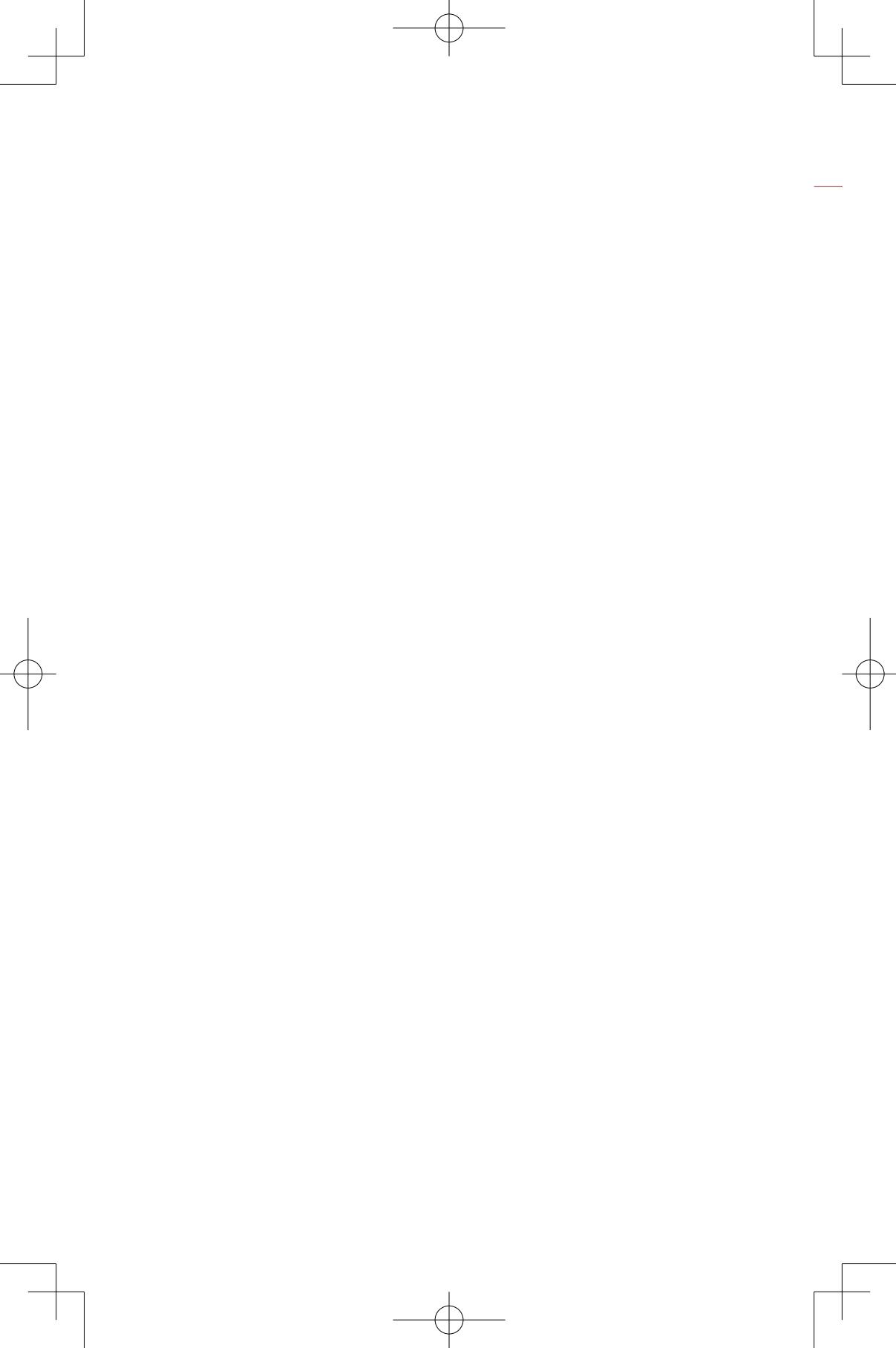
가만히 놔두어도
시간이 가면
죽게 될 것이므로

정말
통쾌한 복수다



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사는 현대인을 위해
꿀벌이 물어 온 네번째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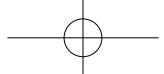


사랑의 밀어

“사랑하는 너야
어서 달려오라.
우리 못 다한
사랑을 나누자”



“오,
나의 사랑하는 분이여
저는 제 사랑 전부를
그대에게 드리리라
하나도
나누지 않고
제 일절의 사랑을
그대에게
모두 드리리라”

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떠을

배가 고프다

배가 고프다

죽을 만큼

배가 고판본 사람만이

사람이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

만들어졌다는 것이

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

알 수 있다



변심

변심할 것 같은 여친에게
스카프를 사서 목에 걸어주면서
남자가 말했다



“딴 생각하면
목 졸려 죽을 거야”

그날 밤
남자는 가위눌려 죽을 뻔했다

잠에 깨어보니
여자가 사준 넥타이가
목을 조르고 있었다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길 떠온

콩가루 집안

엄마가

바람을 피니

아빠는

담배를 피고

자녀는

말썽을 핀다



시보다 짧고 소설보다 긴 여운
꿀통에 빠진 벌

인쇄일

2014년 12월

발행인

박원철

발행처

(사)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

주소

서울시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지하 205호

전화

02-2271-2526

팩스

02-2271-2520

E-mail

okok7100@hanmail.net

출판등록

2013년 1월 23일 제301-2013-026호

I S B N

979-11-950116-9-8 03810

정가 : 10,000원

※ 잘못된 책은 매장에서 교환해 드립니다.

※ 이 시집은 1급 장애인이 쓰고 중증 장애인이 편집하고 인쇄한 책입니다.

